MAY
2021

LUXURY

BALLON BLEU
DE
Cartier

SPECIAL GIFTS

BORN IN LE BRASSUS

AUDEMARS PIGUET

Le Brassus

RAISED AROUND THE WORLD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49-5917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809

Can a bag save the world?

가방이 세상을 구할 수 있나요?

물론 불가능하지요. 적어도 아직은요. 하지만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적은 탄소 발자국을 남김으로써 큰 변화를 위한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mulberry.com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MULBERRY
MADE TO LAST

Mulberry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luxury.designhouse.co.kr
<럭셔리M>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직접 올리는 생생한 온라인 취재 현장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만드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사진 뉴스'

Ballon Bleu de Cartier Watch

'발롱 블루'는 프랑스어로 '파란 공'이라는 뜻.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는 푸른색 카보숑으로 장식한 크라운이 특징으로, 3시 방향 메탈 아치 아래의 이 디테일이 '발롱 블루'라는 이름을 뒷받침한다. 마치 조약돌 같은 볼록한 케이스는 무중력 상태를 연상시키듯 가볍고 유연하게 손목을 감싸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전한다. 스틸 워치부터 파인 주얼리 워치, 컴플리케이션 워치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만날 수 있다.

CONTENTS

06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08 BUY NOW
봄날을 위한 패션·뷰티 아이템

10 INNOVATOR
디자인 크리에이터, 트래쉬버스터즈

12 CULTURE
부산에서 만나는 현대모터스튜디오

16 ITEM
컬러와 패턴을 뒤섞은 스니커즈 4

20 GIFT SPEICAL
품격 있고 감각적인 선물 제안

28 SPACE
포르쉐코리아의 새로운 오피스

30 TECH
스마트하게 즐기는 트레이닝, 스포츠 테크

32 CAR
고성능 자동차와 함께하기 좋은 아이템

38 DINING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테라스 3

40 DESIGN SPOT
호젓한 시간을 즐기는 티 하우스 4

44 DRIVING
한남동에서 만난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EDITORIAL
편집 02-2262-7437

편집팀장 이영채 Youngchae Lee · breeze0@design.co.kr

FASHION
기자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기자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BEAUTY
수석 기자 정애경 Aekyung Jung · ak.jung@design.co.kr
기자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FEATURES
수석 기자 김수진 Sujin Kim · jin@design.co.kr
기자 안서경 Seogyeong Ahn · seo@design.co.kr
기자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게스트 에디터 이승률 Seungryul Lee

미술장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포토 디렉터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포토그래퍼 이기태 · 이경옥 · 이창화
Tone Studio 디렉터 염정훈 Junghoon Yum
포토그래퍼 황인우 Inwoo Hwang
교정·교열 전남희 Namhee Jeon · 유진희 Jinhee Yu

편집장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ADVERTISING
광고 02-2262-7401
유통 관리 02-2262-7407
정기 구독 080-007-1200

이사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부장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차장 문민혁 Minhyuk Moon · moonmh@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부장 이건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부사장 김은령 exlibris@design.co.kr

DESIGN HOUSE INC.
디자인사업부문장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전시사업부문장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경영전략부문장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법률 고문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KCL)
회계 자문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발행인 이영혜

2021년 5월호 통권 제55호.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650. 2021년 3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aim

이건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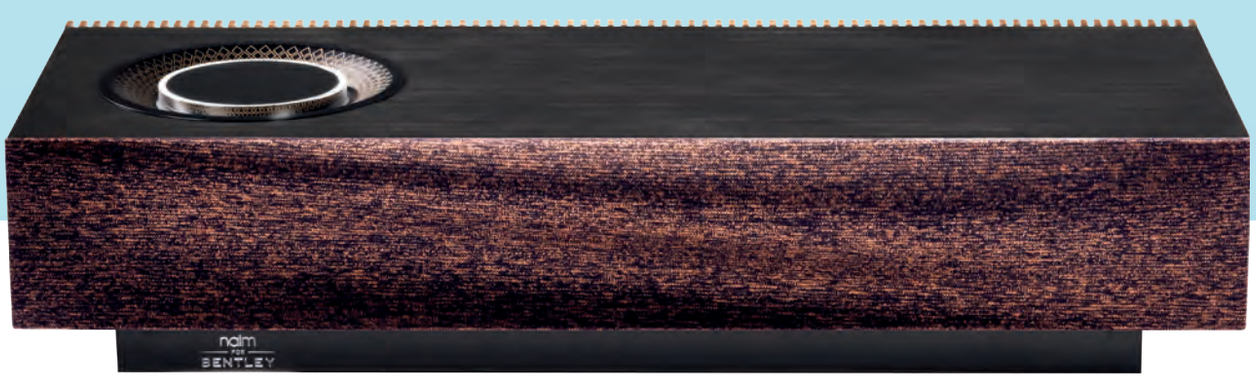
끊기지 않는 음악, 들리지 않던 고음질
게다가 TV와 연결하여 사운드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와이파이로 들어보세요.
하이엔드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국 오디오
판매율 1위

영국 여왕상
3회 수상

벤틀리모터스
컨셉카 디자인 반영

하이엔드 오디오
포칼 기술력 탑재



Naim Muso for Bentley *Special Edition*

오디오갤러리 본사 02-926-9084 포칼 파워드바이 네임 청담 070-8865-9081 포칼 파워드바이 네임 스타필드 하남 031-8027-9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026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6714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720 www.audiogallery.co.kr

HEAD TO TOE

봄의 한복판에 선 5월. 청명한 날씨에 어울리는 패션 & 뷰티 아이템과 주목할 만한 사진전, 달리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신차를 소개합니다. 글 이영채(LYC)·홍혜선(HHS)

이지형(LJH)·최윤정(CYJ)·한동은(HDE) 기자

NEW EXHIBITION

'Eroding Cinder', © Michael Lundgren

<Geomancy> 광활한 대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다움과 동시에 공포심이 들기도 한다. 세계 각지의 사막 풍경을 포착하는 마이클 런드그렌Michael Lundgren은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을 한 프레임에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16년부터 4년간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사막지대를 여행하며 작업한 'Geomancy' 연작의 전 작품 39점을 총망라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막의 다양한 지형을 간접조명 등을 활용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6월 26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 문의 418-1315

'서울 소공동Sogong-dong, Seoul' © 한영수

<우리가 모르는 도시Unknown City> 1950~1960년대 서울의 일상이 사진작가 한영수의 시각으로 펼쳐진다.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가 한영수 문화재단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신세계 본점 라이카 스토어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기획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혼돈을 겪던 시기의 서울이지만 작가의 독특한 앵글과 시선에 담긴 명동 일대와 인물의 모습은 활기가 넘친다. 전시는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료로 진행하며 작가의 미공개 사진도 만날 수 있다. 문의 310-1935 (HDE)

GIFT SELECTION

Fred

A.lange & Söhne

Dior

FRED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프레드의 '리비에라' 펜던트를 추천한다. 핑크 골드와 옐로 골드 펜던트에 야자수 모양 또는 모래사장과 플립플랍 모티프를 장식하거나, 다양한 색감의 젬스톤으로 칵테일 형상을 구현했다. 문의 514-3721

A.LANGE & SÖHNE 밤하늘의 별을 따주는 대신 밤하늘을 담은 시계, '리틀 랑에 1 문페이즈' 워치를 선물해보자. 다크 블루 골드 플럭스로 코팅한 다이얼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별 모양의 아워 마커, 대범한 크기의 날짜 창, 5시 방향에서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달의 다채로운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과 깔끔한 화이트 골드 베젤 2가지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6905-3326

DIOR 자연과 쿠튀르가 결합하면 어떤 형상이 나올까? 디올은 천연 광물의 모양과 패브릭 견본을 종이 시트로 고정했던 무슈 디올의 디자인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비대칭 형태의 '젬 디올' 컬렉션을 만들었다. 젬스톤을 불규칙하게 배열한 반지와 브레이슬릿,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한 시계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해 누구에게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문의 3480-0104 (HHS)

SCENTS FOR SPRING

BYREDO
여행의 출발지와 도착지, 그 사이의 공간감을 향으로 승화한 '오픈 스카이 오 드 퍼퓸'을 출시한다. 강렬한 포멜로 향을 시작으로 블랙 페퍼, 팔로 산토, 베티베르가 어우러진다. 문의 3479-1688

BULY 1803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8가지 대표적 명작을 향으로 표현한 '루브르 에디션'을 다시 한번 출시한다. 그중 베스트셀러 '오 트리뷸-발팽송의 목욕하는 여인'은 오렌지 블라섬을 중심으로 네롤리, 파촐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풍성한 향을 완성한다. 문의 1544-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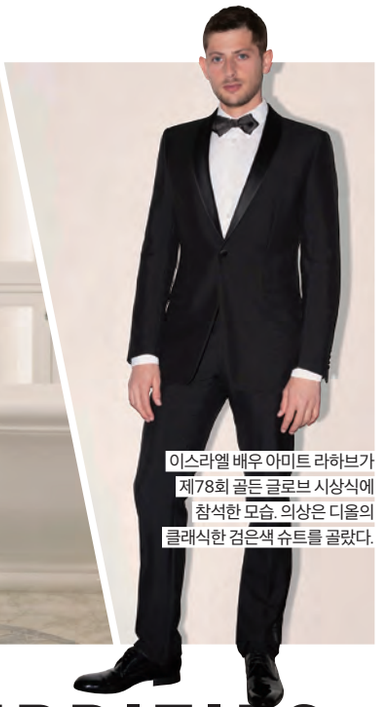
DIPTYQUE
은은하면서도 관능적인 로즈 부케 향을 풍부하게 담은 '오 카피탈 헤어 미스트'를 선보인다. 카멜리아 오일이 찰랑이는 머릿결을 완성한다. 문의 3479-6049 (LJH)

CELEBRITIES AT THE EVENT

(CYJ)

이탤리언 럭셔리 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스포츠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발탁했다. 파트너십 체결 후, 첫 번째 행보로 고성능 SUV '르반떼 트로페오'와 함께한 단편영화를 공개했다.

배우 캐리 멀리건은 프라다의 과감한 오픈 백 드레스를 입고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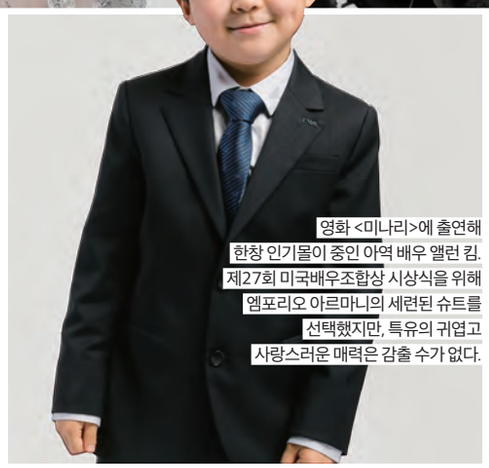


이스라엘 배우 아미트 라하브가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의상은 디올의 클래식한 검은색 슈트를 골랐다.

영화 <미나리>의 주연배우로 여러 해외 시상식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한예리.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는 실루엣이 풍성한 알렉산더 맥퀸 드레스를 입었다.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만난 배우 니콜 키드먼. 섬세한 자수 장식의 튈 드레스는 2021 S/S 시즌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리베 컬렉션에 등장했던 의상이다.

배우 니컬러스 홀트는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의 바머 재킷으로 캐주얼한 시상식 패션을 완성했다.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는 드라마 <더 그레이트> 출연 배우로 참석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해 한창 인기몰이 중인 아역 배우 앨런 킴.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을 위해 엠포리오 아르마니의 세련된 슈트를 선택했지만, 특유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은 감출 수가 없다.

제26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 등장한 배우 질리언 앤더슨. 디올의 올 블랙 의상을 멋스럽게 소화했다.

배우 벤 스틸러는 산드라 오를 포함한 여러 배우들과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의 공동 진행자로 활약했다. 흰색 셔츠와 울 슈트, 가죽 구두 모두 프라다.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고전적 스타일로 한껏 치장한 주인공은 배우 줄리아 가드너. 헤어는 업스타일로 연출하고, 프라다의 아르데코풍 드레스를 매치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R

DYNAMIC DRIVING

레이싱 DNA와 모터스포츠 기술을 적용한 정통 고성능 스포츠카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R'을 국내 최초로 론칭했다. 메르세데스-AMG가 독자 개발한 두 번째 스포츠카인 'AMG GT 2-도어 쿠페'의 최고 성능 모델로, 양산차 최초로 AMG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등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주행 기술을 탑재해 한층 더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제네시스에서 공개한 전기차 기반의 GT 콘셉트 카 '제네시스 엑스'는 역동적인 우아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량 내·외장 곳곳과 전기 충전구에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인 '두 줄'을 극대화했다. (LYC)

제네시스 엑스

부산을 대표하는 대규모 아트페어 '아트부산'이 5월 14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국내 92개, 해외 18개 갤러리가 참가해 4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WE ARE PLAYERS!

위아래를 맞춘 트랙 슈트 혹은 눈에 띄는 배색 아이템을 활용해
'유니폼' 스타일로 연출해보자. 한층 진화된
2021 S/S 시즌 스포티 룩에 다가서는 방법이다.

글 최윤정 기자 | 사진 염정훈 | 어시스턴트 유승지

1

'VLTN' 로고에
멀티컬러를 입힌 캡 모자.
발렌티노 가라바니(543-5125)

2

과감한 배색과 레터링 장식으로
스트리트 감성을 살린 가죽 스웨트셔츠.
셀린느(549-6631)

Miu Miu

3

이탈리아 텀블러 제조사
24보틀스와 협업해 만든
스테인리스스틸 보온 용기와
FF 모티프를 새긴 패브릭 홀더.
펜디(2056-9023)

4

염소 가죽과 패브릭을 조합한
벨크로 샌들.
샤넬(080-200-2700)

5

선바이저 형태를 차용한
짙은 녹색의 '바이저' 선글라스.
샤넬(080-200-2700)

6

그래픽 패턴을 적용한 트랙 슈트.
미우 미우(3218-5331)

7

브랜드 본사 주소를 뜻하는
'호스페리' 프린트가 특징인 '하프 큐브' 백.
버버리(080-700-8800)

8

100% 송아지 가죽 소재의
'CT-01' 미드 톱 스니커즈. 셀린느(549-6631)

Celine

미우 미우는 가상의 운동경기장으로 꾸민 런웨이를 무대로 스포츠웨어와 하이패션을 결합한 2021 S/S 시즌 의상을 선보였다.

SCENT FOR HANDS

매만지고 싶을 만큼 부드러운 피부로 만드는 것은 물론,
향기까지 더하는 핸드크림 8.

글 이지형 기자

Kenzo

1

시어버터와 해수가 건조한 손을
촉촉하게 하고 은은한 향을 더하는
'셀루라 핸드 크림'.
라프레리(511-6626)

2

일본 고야산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영감 받은 히노키 나무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핸드 포마드 히노키'.
르 라보(3440-2591)

3

매그놀리아를 시작으로 가드니아와
로즈로 이어지며 시더우스와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향을 남기는
'뷰티풀 매그놀리아 핸드 크림'.
에스티 로더(6971-3212)

4

로즈 왁스와 오일이 풍부한 영양을 더하고,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는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므 망 드 로즈'.
디올(080-342-9500)

5

아몬드와 살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인 향을 완성하는
'럭셔리어스 핸드밤'.
딥티크(3479-1688)

6

만다린 라인드 오일, 로즈메리 리프 오일이
손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동시에
상쾌하고 시원한 향을 남기는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 이솝(1800-1987)

Max Mara

7

시어버터가 강력한 보습 효과를 선사하고
암브레트, 네스베리, 시더우드가 어우러지며 상쾌한
향기를 전하는 '모하비 고스트 핸드 크림'.
바이레도(3479-1688)

8

베르가모트, 파촐리 그리고
샌들우드가 어우러진 향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누드에이치앤드크림 000'.
탬버린즈(1644-1246)

향수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핸드크림을 동일한 향의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향기 지속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트래쉬버스터즈

쓰레기 잡는 사람들의 유쾌한 **일회용품 소탕** 작전

‘It’s not a big deal!(별거 아니야!)’라는 쿨한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며 지구를 괴롭히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에 솔루션을 제안하는 브랜드가 있다. 트래쉬버스터즈를 이끄는 4인을 만나 일회용품을 퇴치하는 유쾌한 방법에 대해 들었다.

글 한동은 기자 | 사진 이창화 기자

KT의 20대 브랜드 Y와 협업해 출시한 ‘제로 웨이스트 피크닉 세트’.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가 고민이시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저희가 출동할게요!” 여기,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라는 솔루션을 안고 야심 차게 출동하는 브랜드가 있다. 축제 기획자 곽재원, 디자이너 최안나, 설치미술 작가 곽동열, 브랜드 컨설턴트 김재관을 주축으로 한 트래쉬버스터즈다.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도 ‘정말 이런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개인의 노력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던 사람의 손에 다회용품을 얹어주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거죠.” 최안나 CBO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다.

곽재원 CEO는 축제에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보며 브랜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도 튈 수 있는 오렌지색을 키 컬러로 설정하고 키치한 무드로 디자인의 방향을 정했다. 예쁜 패션 브랜드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곽 CEO의 설명. ‘2019 서울인기’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고 다회 용기를 빌려준 후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전년 대비 쓰레기 98% 감소라는 확실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쓰레기 없는 축제’의 가능성을 맛본 기쁨도 잠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김재관 CFO는 축제에서 생기는 일회용품도 사라져서 환경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반면 배달 음식의 증가와 위생 문제에 대한 염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어요. 단체 도시락 업체, 장례식장, 사내 카페 등으로 빠르게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3월 초부터 돌봄 어르신의 끼니를 챙겨드리는 프로젝트에 투입돼 단체 도시락 쓰레기 퇴치를 시작했다. 일회용 도시락 대신 트래쉬버스터즈의 다회 용기를 사용하고 용기를 수거해 세척한 후 다시 대여하는 방식이다. 총 3단계의 세척 및 건조 시스템과 자외선 램프 살균, 열풍 소독을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기를 관리한다. 이때, 다회 용기는 세계적인 밀폐 용기 브랜드 ‘타파웨어’의 도움을 받았다. 잘 알려진 브랜드의 내구성과 밀폐력 덕분에 단체 도시락을 제공받는 어르신들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타 브랜드와 달리 용기 뚜껑에 홈이 없어 음식물이 잘 끼지 않아 세척도 용이하다.

트래쉬버스터즈의 다회용 도시락 용기.

(왼쪽부터) 최안나·곽재원·곽동열·김재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요즘, 환경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트래쉬버스터즈는 다양한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KT와 협업해 오렌지색 다회용 식기류와 페트 원사로 만든 피크닉 가방으로 구성한 '피크닉 세트' 굿즈를 출시하고, 4월 15일부터 KT 광화문 사옥 사내 카페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전면 교체했다. 곽재원 CEO는 "올해 과제는 다회용 도시락 용기 대여 사업 정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기입니다. 사내 카페와 탕비실에 트래쉬버스터즈의 다회용 컵을 도입해 직장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트래쉬버스터즈는 디자인하우스에서 발행하는 월간 〈디자인〉과 존스 앤 로켓이 함께 만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디자인네이션 1기'에 선정되었다. 김재관 CFO는 투자 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말을 이었다. "디자인하우스의 콘텐츠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잡지 매체 노출뿐 아니라 디자인 페스티벌 등의 행사에 참여하며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었죠. 전형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의례처럼 치러지는 과제와 발표보다는 각 브랜드에 맞는 도움을 주는 부분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곽동열 CCO가 답했다. "쓰레기 없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싶진 않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이 하나둘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디자인하우스의 인프라를 통해 하이엔드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퍼블릭 퍼니처 등의 디자인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디자인네이션' 2기를 모집한다. 5월 30일까지 투자제안서와 사업자등록증을 designnation@design.co.kr로 보내면 된다.

DESIGN LANDMARK

현대모터스튜디오의 여섯 번째 거점은 부산이다. 판매하는 자동차 한 대 없이,
소통과 공감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한다.

글 이영채 기자 | 사진 이기태 기자, 현대모터스튜디오

1

2

부산의 새로운 디자인 명소

1963년부터 고려제강이 와이어 생산 공장과 창고로 쓰던 기존 건물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한 채 레노베이션한 재생 건축 단지 'F1963'. 2016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카페와 펍, 막걸리 테마의 파인다이닝, 전시장, 도서관, 서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피어난 이곳에 지난 4월 8일,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들어섰다.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창조하고, 경험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현대모터스튜디오는 서울, 고양, 하남,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부산까지 지역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담는다. 2014년 개관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이 현대자동차의 실험 정신이 담긴 첫 번째 브랜드 체험 공간이라면, 고양은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 하남은 미래 모빌리티, 베이징은 아트 창구, 모스크바는 미래에 대한 직관적인 경험을 나누는 곳이다. 여섯 번째로 문을 연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콘셉트는 'Design to Live by'. 현대자동차 스페이스오퍼레이션팀 김소민 팀장은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시장에 양산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힘을 테마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코넬리아 슈나이더Cornelia Schneider 글로벌경험마케팅 상무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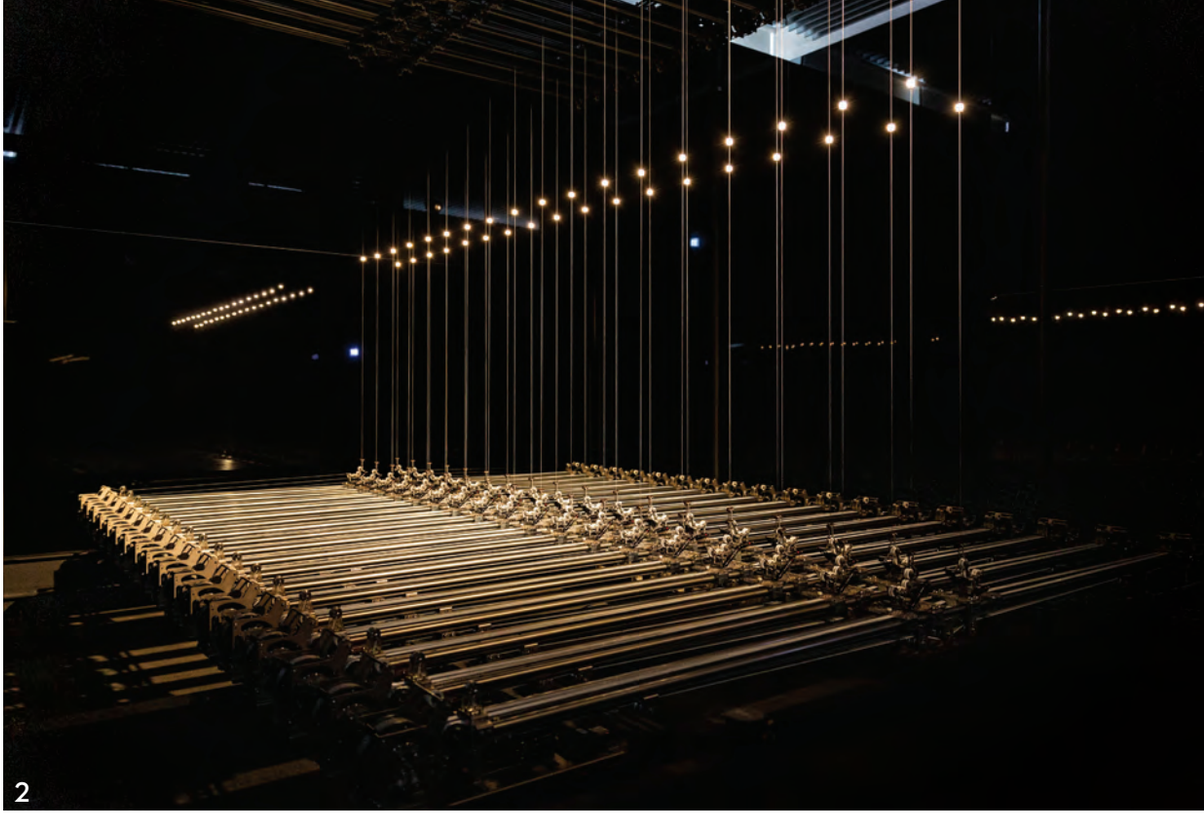
동차 브랜드와 협업을 고려하던 고려제강과 문화적으로 특색 있는 공간을 찾던 현대자동차의 공감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현대모터스튜디오는 아트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문화적 소통을 하는 공간입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과 같이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곳도 있고 아트와 테크의 융합,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객들과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실험적인 도전 Experimental Creation'이라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가 고유의 전시 및 경험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영감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건축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주목받는 데에는 건축의 힘도 크다. 원오원 아키텍츠 최욱 소장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건물은 와이어와 철골을 핵심 소재로 활용해 F1963과 결을 같이 한다. 약 600m에 이르는 고려제강 와이어의 장력으로 바다 위에 기둥 없이 떠 있는 현수교 같은 건물 내·외부에는 거친 철골 부재와 와이어 부재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2~3층의 전시장 천장에는 알루미늄 루버, 4층 천장에는 익스팬디드 메탈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정교함을 더했다. 접합부의 볼트, 구조체의 노출 등 구조적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인테리어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건물 곳곳에는 업사이클링 요소도 반영했다. 2층과 4층 바닥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용했던 플라스틱, 유리 등 폐자재를 가공해 만든 테록시를 마감재로 활용했으며, 3층에는 바닷가에 버려진 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카펫을 깔았다. 코넬리아 슈나이더 상무는 "건축물이 쓰임을 다한 후에도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훗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현대자동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설명한다.

1 현대자동차의 1975년 고유 모델 포니를 재해석한 헤리티지 시리즈.
2 원오원 아키텍츠 최욱 소장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외관.
3 현대자동차 전기차 디자인의 미래를 제시하는 콘셉트 카 프로페시.
4 3층 캣워크에서 내려다본 <리플렉션즈 인 모션> 전시.
5 현대자동차 글로벌경험마케팅 상무 코넬리아 슈나이더.



1 만화경을 통해 소재의 변화와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 '머티리얼'.
2 현의 진동과 울림을 기계장치와 빛으로 재현한 목진요 작가의 '미디어 스트링스'.
3, 4 1층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월에서는 디지털 아트 그룹 유니버셜 에브리띵의 작품을 상영한다. **5** 다채로운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숍.
6, 7 부산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시그너처 메뉴를 선보이는 마이클스 어반 팜 테이블.

헤리티지와 미래를 잇는 리플렉션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 층, 총면적 2261.8m² 규모의 부유하는 듯한 건축물을 찬찬히 감상하며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월Creative Wall'이다. 필로티 형태의 1층 한 면을 가득 채우는 17×3.8m의 대형 LED 스크린에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을 시각화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상영하는데, '유니버셜 에브리띵Universal Everything(UE)'이 첫 번째 전시를 맡았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방향성과 미래의 청정 모빌리티 사회를 향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시각화한 '런 포에버Run Forever', 수천 명의 작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여 서로 연결되고 패턴을 만드는 UE의 대표작 '트라이브스Tribes', 인간의 끝없는 상상력으로 탄생하는 자동차의 진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메이드 바이 휴먼스 플루이딕Made by Humans Fluidic', 형형색색의 생명체들이 노래에 맞춰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위 아 올 유니크We are All Unique' 등 총 4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메인 전시관인 2층에서는 개관 기념 전시 <리플렉션즈 인 모션Reflections in Motion>이 6월 27일까지 열린다. 전시 제목의 리플렉션, 즉 반영은 2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스케치부터 완제품 출시까지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는 디자이너의 시선, 아트워크 앞에 선 관람객이 반영되듯 마주하는 디자인 경험을 모두 포괄한다.

현대자동차의 시초를 상징하는 '포니'를 재해석한 '헤리티지 시리즈-포니Heritage Series-PONY'에서 시작해 다양한 색과 빛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컬러 & 라이트Color & Light', 소재를 아름답게 투시하는 '머티리얼Material'을 거쳐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까지 모두 미래를 향한 디자인 여정을 담았다. 코넬리아 슈나이더 상무는 이 모든 게 현대자동차 디자인의 발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또 전시 스토리 라인을 한눈에 파악하려면 3층의 캣워크를 거닐며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기를 추천했다. "모든 구역의 전시물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리플렉션의 사전적 의미와 디자인적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곳곳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의 키워드인 픽셀 모티프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1975년 당시의 모델을 3D 스캔한 문을 장착한 헤리티지 시리즈-포니는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등 차량 곳곳에 픽셀 모티프를 차용했으며, 차량 아래 LED 플로어에

서는 1970~1980년대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픽셀 조합 패턴을 담은 미디어 영상 작품 '픽셀 로드트립The Pixel Roadtrip'이 펼쳐진다. '컬러 & 라이트'의 리플렉션 디스크에는 포니의 8비트부터 프로페시의 8K까지 픽셀 모티프를, 프로페시의 리어램프에서도 픽셀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2층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서면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 작가의 설치 작품 '미디어 스트링스Media Strings'가 펼쳐진다. 작은 LED가 달린 와이어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며 빛이 현을 타고 흘러 소리를 내는 듯한 연출이 색다른 감동을 준다.

지역과 연계하는 디자인 체험 공간

4층은 레스토랑과 테라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러닝 존으로 구성했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마이클스 어반 팜 테이블'은 '음식으로 농장과 고객을 연결한다'는 콘셉트 아래 부산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시그너처 메뉴를 선보인다. 1층 카페에서는 자체 개발한 신선한 원두와 유기농 과일, 채소를 직접 갈아 만든 주스를 비롯한 30여 가지의 메뉴를 판매한다.

다양한 연령의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 프로그램, 전시 테마 및 콘텐츠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의 형식으로 펼치는 '디자이너스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소민 팀장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디자인 큐레이션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을 눈여겨볼 것을 당부한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최종 수상자의 전시가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시간의 가치를 주제로, 시간이 주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투영하고자 합니다."

5

6

7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는 5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국 현대미술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작가 안규철의 개인전 <사물의 뒷모습>을 개최한다.

MIX & MATCH
SNEAKERS

온갖 컬러와 패턴이 뒤섞인 스니커즈가 유행이다.
역동적인 웨이브 프린트부터 브랜드 고유의 패턴을 다채롭게 변주한 스타일까지.
발끝에 시선을 모으는 4가지 버전의 운동화를 모았다.

EDITOR CHOI YOONJUNG **PHOTOGRAPHER** YUM JUNGHOON

Monogram Match

스케이트화에서 영감을 받은 'LV 올리' 남성용 스니커즈.
팝 컬러를 적용해 유서 깊은 '다미에'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루이 비통.
모노그램 패턴을 다채롭게 활용한 'GG 라이톤' 여성용 스니커즈.
같은 무늬를 베이지, 블루, 에보니 등 여러 컬러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구찌.

Wave Print

그러데이션 프린트와 VLTN 로고,
고무 밑창의 몰딩 디테일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남성용 '웨이드 러너' 스니커즈는 발렌티노 가라바니.
굴곡진 아웃솔을 따라 푸른색 선을 수작업으로 그린
여성용 '하이퍼렉티브' 스니커즈는 호간.

Black + Colors

다양한 색과 소재를 고루 조합한 남성용 '크루' 스니커즈.
염소 가죽과 테크니컬 캔버스로 제작했다. 에르메스.
송아지 가죽과 스웨이드, 표면에 구멍이 뚫린
퍼포레이티드perforated 가죽 소재가 어우러진 'SL/24'
남성용 스니커즈는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오렌지 컬러가 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편,
스터드 장식을 더해 강렬한 느낌까지 겸비한
'해피 루이 스파이크 플랫' 스니커즈는 크리스찬 루부탱.

Metalic Texture

5mm 굽을 장착한 'CT-02' 남성용 스니커즈. 실버 컬러를 주축으로 블루 & 레드 컬러의 강렬한 배색이 돋보인다. 셀린느.
캐주얼한 다이아몬드 트레이너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아몬드 라이트' 여성용 스니커즈. 광택 있는 나파 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마드리안 레드 컬러와 푸크시아 핑크 컬러를 섞어 복고풍으로 마무리했다. 지미 추.

세트 스타일링 유지혜
제품 협조 구찌(1577-1921), 루이 비통(3432-1854), 발렌티노(543-5125), 생 로랑(549-5741), 셀린느(549-6631), 에르메스(542-6622), 지미 추(3438-6107), 크리스찬 루부탱(541-8550), 호간(540-0523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 주세페 자노티가 2021 F/W 시즌 컬렉션을 공개했다. '레트로 퓨처리즘'을 표방한 메탈릭 가죽 소재의 '타론' 농구화가 대표적.

WISH AND DREAM

소중한 사람들의 고마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미소를
상상하게 되는 5월. 선물을 고르는 일에는 받는 순간만큼이나
설레는 즐거움이 있다. 주고받는 기쁨을
더욱 크게 채워줄 품격 있고 감각적인 선물 제안.

EDITOR YOON JUNGEUN **PHOTOGRAPHER** YUM JUNGHOON

Boucheron

프랑스어로 숫자 4를 의미하는 이름처럼
4개의 서로 다른 밴드를 조합한 '콰트로' 컬렉션.
독특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발산할 뿐 아니라 남녀 모두
잘 어울려 선물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중 '콰트로 클래식 미니링 다이아몬드' 펜던트는
심플한 옷차림에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제격.
'콰트로 화이트 타이' 네크리스는조금 더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잘 어울린다. 한쪽 귀에만 착용할 수 있는
'콰트로 화이트 스몰 싱글 클립'이나
'콰트로 클래식 엑스스몰 싱글 클립' 이어링도
주목할 만하다. 보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밴드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로 레디언트 인게이지먼트' 링을 눈여겨볼 것.

2018년 탄생한 '플륌 드 펑' 컬렉션은
공작새의 깃털에서 영감을 받았다.
깃털 중앙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화이트 골드 위에 촘촘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반짝임을 선사한다.
'쎄뻥 보헴' 컬렉션은 뱀에게서
영감 받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주얼리다.
1968년 첫선을 보였고 여러 세대를 거치며
부쉐론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뱀 머리를 연상시키는 드롭 형태의
디자인과 섬세한 골드 세공이 특징.
뱅글 한쪽에 유색 보석으로 포인트를 준
'쎄뻥 보헴 아쿠아프레이즈' 뱅글을 비롯해
다양한 스타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부쉐론(6905-3322)

Mulberry

지속 가능성을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멀버리.
가방 역시 탄소 중립 공장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한다.
그중 '아이리스' 백은 부드러운 구조와 다양한 활용도로
널리 사랑 받는 제품. 중앙에 고유의 '키스톤' 잠금장치로 포인트를 줬고,
사이드 끈이 달려 있어 가방 실루엣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상단의 핸들을 취향에 맞춰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핸들 디자인 또한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이 넓다.
가방 핸들에 포인트로 장식한 백 스카프 역시 멀버리의 인기 제품 중 하나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록lock 장식과 로고를 모티프로 디자인했다.

색색의 빈티지 트럭을 프린트한 실크 스카프는 어느 계절에나 잘 어울려
부담 없는 선물로 추천할 만한 아이템. 목에 두르거나 머리를 묶을 때도 유용하고
가방 핸들에 장식해도 멋스럽다. 가죽 지갑 또한 실용성이 돋보인다.
여러 개의 수납공간으로 구성한 천연 그레인 가죽 소재의 지갑으로,
안감에 나파 가죽을 사용해 내부까지 세심하게 제작했다.
멀버리를 상징하는 '포스트맨' 잠금장치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다. 문의 멀버리(2018-1400)

Silk'n

젊고 건강한 피부는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실큰의 신제품 고주파 마사지기 '페이스타이트 3.0'은 이를 위한 비장의 도구다.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RF), LED 레드라이트, 열에너지(IR)
3가지 기능을 동시에 발휘해 피부 속 탄력을 회복시킨다.
목 피부 처짐 277.44% 개선, 팔자주름 부위 볼륨 72.95% 변화의 결과가
P&K피부임상연구센터의 인체 적용 시험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인피니티’는 2주에 한 번씩 2개월 사용으로 2년의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정용 갈바닉 IPL(Intensive Pulsed Laser) 제모 의료 기기다. 갈바닉과 IPL을 접목시킨 실큰의 혁신적 기술력이 엿보인다. 갈바닉 베이스 전극과 조사 버튼을 동시에 잡고 누르면, 갈바닉 에너지가 피부 모공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고 광 에너지가 체모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 효과적인 제모를 돕는다. 연속으로 조사되는 ‘글라이딩’ 기능이 제모 시간을 단축시키며, 피부색을 측정하는 센서 덕분에 어두운 피부에 조사되지 않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살균 작용을 하는 클렌징 박스를 함께 제공해 사용 후에도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다. 문의 실큰(080-246-1234)

su:m 37°
Summa Elixir
Essence

Su:m37°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피부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동일하지 않다. 소중한 이들에게 시간을 잡아줄
마법 같은 힘을 선물하면 어떨까? 숨37° '숨마 엘릭서 에센스'는
2000년 전의 고귀한 발효 비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담아낸
30년 발효 과학 노하우의 집약체다. 자극의 우려는 줄이고
탄력 효과는 높이는 프로-레티놀과 순도 98% 발효 비타민,
탄탄함을 선사하는 펩타이드 등 8가지 핵심 성분을 15% 고함량으로
한 병에 담아 8가지 피부 노화 징후를 다각도로 케어한다.
영롱한 골드빛 에센스가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며,
실크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제형은 바를 때 편안한 만족을 더한다.
사용 후 눈에 띄게 달라진 탄력 광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을 것. 문의 숨37°(080-023-7007)

소통과 협업을 위한 오피스

PORSCHE PLATZ

2014년 설립한 포르쉐코리아가 설립 7년 만에 파르나스타워로 이전했다. 포르쉐 그룹 최초로 지정석이 없는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광장' 콘셉트로 구성한 새로운 사무실을 <럭셔리M>에 최초로 공개한다.

글 이영채 기자 | 사진 이우경 기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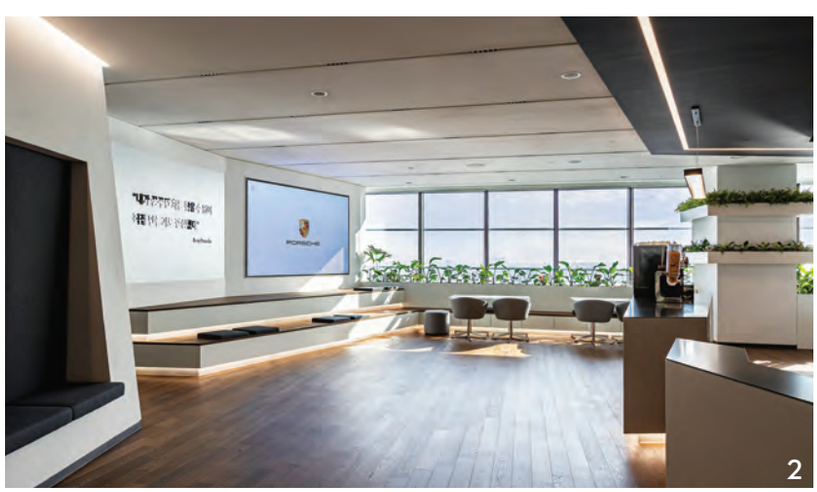
역사와 미래를 잇는 꿈의 자동차

"내가 꿈꾸던 차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포르쉐코리아가 위치한 파르나스타워 26층, '포르쉐 플라츠Porsche Platz'라고 불리는 광장 한쪽 벽에는 포르쉐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쉐Ferdinand Porsche의 아들 페리 포르쉐Ferry Porsche가 했던 말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 2020년 '911', '카이엔 쿠페', '타이칸' 등을 출시해 총 7779대를 판매하며 총 매출 1조109억 원을 기록한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타이칸 터보', '타이칸 터보 S', '911 GT' 등 매력적인 신차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CEO 홀가 게어만Holger Gerrmann은 포르쉐의 원칙과 철학은 페리 포르쉐가 추구한 완벽한 차에 대한 꿈을 잇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르쉐는 개인화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혁신과 전통, 강력한 퍼포먼스와 일상적 실용성, 디자인과 유용성, 배타주의와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가지 상반된 가치를 하나에 담습니다. 모두를 위한 차는 아니지만, 차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죠. 트렌드가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에 따라 제품을 완성하고요. 지속적으로 경계를 넓히며 '가장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고객과 팬들의 성원 덕분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BOUT

위치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6층
규모 총 면적 1036.8m²
문의 www.porsche.com/korea/ko


2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의 성공적 론칭 이후 포르쉐는 파워, 효율, 다이내믹이라는 고유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가솔린 모델의 지속 가능한 개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의 확대 그리고 순수 전기차 생산 등 크게 3가지 축의 제품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의 절반 이상을 전동화 모델로 생산하고, 2030년에는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 3월, 다재다능한 오프로드 버전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전 세계에 공개한 것 역시 순수 전기 스포츠카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홀가 게어만 CEO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쉐가 추구하는 꿈과 열정의 가치를 반영한 '포르쉐 두 드림Do Dream' 캠페인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포르쉐코리아가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한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 예술계를 포함해 교육, 스포츠, 환경 등으로 범위를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소통하는 사무실

파르나스타워 26층에 위치한 포르쉐코리아 사무실은 한강과 롯데월드타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 맛집'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피 머신, 토스터 등이 놓인 카페테리아가 보이고, 그 앞으로 계단식으로 이뤄진 포르쉐 광장이 이어진다. 통창 앞으로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곳곳에 싱그러운 식물을 심었다. 포르쉐 광장을 가운데 두고 좌우 두 갈래로 나뉜 사무실은 포르쉐 그룹 최초로 칸막이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다.

포르쉐코리아 CFO 크리스티안 네이터Christian Nater는 전 직원 전수 조사와 물망에 올랐던 여러 후보 지역을 답사한 끝에 접근성, 조망권,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소개한다. "파르나스타워는 국제 친환경 건물 인증 제도인 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해 포르쉐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의 가치와 부합합니다. 공간 디자인은 브랜드 컬러와 모터스포츠 테마, 본사가 위치한 주펜하우젠 등 포르쉐를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고요."

본사의 국제 건축 프로젝트 부서(PBR), 해외 지역 및 성장 시장 부서(V5), 그리고 포르쉐코리아 프로젝트 직원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한 사무실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의사소통의 활성화, 팀 정신 강화를 기반으로 설계 초안을 만들었으며, 한국의 문화와 포르쉐의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다. "메인 회의실 이름은 1950년 최초로 '포르쉐 356'을 생산한 주펜하우젠 공장을 상징하기 위해 '공장'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르크'에서 따온 '베르크1'입니다. 현재 주펜하우젠 공장에서 타이칸을 생산하는 것을 반영해 정면 벽에 356과 타이칸이 나란히 서 있는 대형 사진을 장식했습니다. 다른 회의실 역시 모터스포츠에 뿌리를 둔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르망, 뉘르부르크링이라고 명명했고요. 라운지에는 포르쉐 스포츠카의 경주 신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자석판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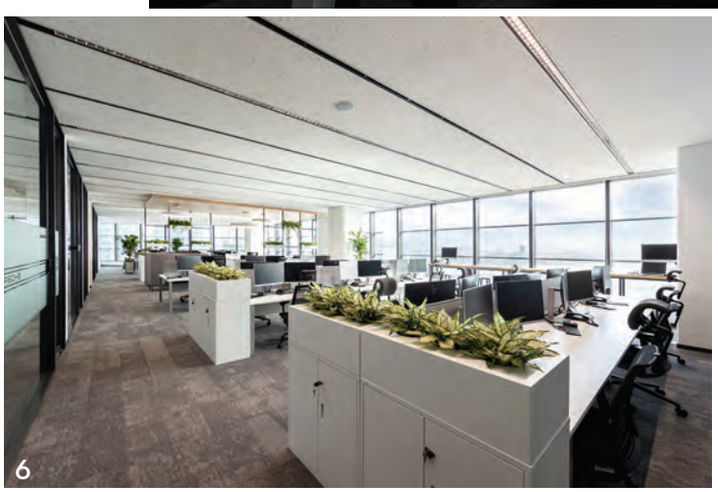
새로운 사무실은 업무 내용과 방향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 회의가 잦은 팀은 매직 미러 글라스 덕분에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베르크1을 선호하고, 이벤트나 캐주얼한 미팅에는 르망과 뉘르부르크링, 이노랩을 찾는다. 각종 경기에서 우승한 레이싱 카 컬러로 꾸민 포커스 룸 역시 전화 업무나 집중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인기다.

3

4

1 포르쉐코리아 CEO 홀가 게어만.
2 입구에 카페테리아와 광장을 배치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3 모터스포츠에 뿌리를 둔 브랜드답게 르망과 뉘르부르크링이라고 이름 붙인 회의실. 용도와 인원에 따라 칸막이 벽을 사용해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4 포르쉐코리아 CFO 크리스티안 네이터.
5 포르쉐 356을 처음 생산한 공장을 상징하는 메인 회의실 베르크1.
6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포르쉐코리아 사무실.

5


6

포르쉐는 미국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신재생 저탄소 e 연료를 테스트 중이다.

스마트하게 즐기는 트레이닝, **스포츠 테크**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홈 트레이닝의 방식도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간편하게 운동을 즐기게 해줄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스포츠 기기를 소개한다.

글 김수진 기자

최첨단 복싱 글러브, 무브 잇 스위프트

집에서도 체계적으로 복싱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무브 잇 스위프트Move It Swift'. 사용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6축 모션 센서가 장착된 전용 글러브를 착용하고 훅, 스트레이트, 어퍼 컷 등을 휘두르면 연동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전용 앱에 각 펀치의 파워와 속도, 소모된 칼로리 등이 표시된다. 데이터를 통해 펀칭 스타일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훈련 후에는 개인 목표에 대한 솔루션과 트레이닝 계획을 제공해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이제 막 권투를 시작한 초보 코스부터 전문가 수준의 마스터 코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swift.org

가상으로 즐기는 라이딩, 즈위프트

친숙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혼자 오랜 시간 타기엔 지루함이 큰 실내 자전거. '즈위프트Zwift'는 실내에서도 재미있게 사이클을 즐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상 프로그램이다. 자전거 앞에 노트북이나 TV 스크린 등을 설치한 후 고정 롤러에 센서를 연결하면 준비 완료. 페달을 밟으면 속도와 방향에 맞춰 화면 속 가상 세계에서도 자전거가 움직인다. 취향과 실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코스가 다채롭고 전 세계 이용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토너먼트도 마련돼 있어 흥미로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zwift.com

펜싱을 가미한 스포츠 게임, 자비

낯선 장비, 까다로운 규칙 등으로 진입 장벽이 다소 높게 여겨지는 운동인 펜싱을 간단히 체험해보고 싶다면 스포츠 게임 '자비JABII'를 눈여겨보길. 손전등처럼 생긴 장비를 한 손에 들고 앞으로 쭉 밀면 펜싱의 검처럼 길어지는데, 끝부분이 대결하는 상대의 몸에 닿으면 공격 성공이다. 실제 펜싱과 기본적인 규칙은 같지만 공격을 통해 득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된다. jabii.com

똑똑한 요가 매트, 요기파이

요가의 핵심은 정확한 동작. 집에서 혼자 수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틀어진 자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요기파이YogiFi'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스마트 매트다. 한쪽 끝에 장착된 컨트롤러와 전용 앱을 연동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단순히 요가 동작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수행자의 자세를 추적하고 무게중심과 신체 위치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yogifi.fit

색다른 줄넘기, 스마트로프 루키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기업 탱그램팩토리가 개발한 '스마트로프 루키 SmartRope Rookie'는 전용 앱과 연동해 줄 넘는 횟수와 칼로리 소비량, 운동 시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줄넘기. 배터리를 장착한 후 손잡이를 돌리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며, 볼 베어링이 장착돼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tangramfactory.com

덤벨의 신세계, 무브벨

'무브벨Movebell'은 일반적인 덤벨에 스마트 기능을 더해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도와주는 스포츠 기기. 내부에 장착된 모션 센서가 실시간으로 동작과 운동량을 측정하고 매일의 신체 변화를 분석해 적절한 운동을 권장한다. 줌바 댄스, 킥복싱, 필라테스 등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으며 30분 충전으로 300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ubioshop.co.kr

집 안의 스크린 골프, 시타-X

날씨와 계절의 제약 없이 365일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발된 '시타Sita-X'. 동작 인식 센서가 내장된 60cm 길이의 골프 연습 기기로 스윙과 퍼팅 연습, 스크린 골프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스윙 템포, 헤드 스피드, 스윙 패스 등 6가지 스윙 동작의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줘 동작 점검과 체계적인 연습이 가능하다. aiigood.com/sita-x

미래형 훌라후프, 브이후프

'브이후프VHOOP'는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만든 훌라후프로, 내부에 장착된 모션 센서가 돌릴 때마다 횟수를 측정한다. 회전수,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부여해 동기 부여도 해준다. 최대 640g까지 무게 추를 추가할 수 있으며 8조각으로 분리돼 보관이 용이하다. vhoop.net

집 안에 스마트한 헬스장을 꾸미고 싶다면 '홈 트레이닝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펠로톤Peloton'에 주목할 것. 운동 기구 대여와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DRIVING MATE

훌쩍 떠나고 싶은 날. 드라이브와 여행에 최적화된 고성능 자동차와 함께하기 좋은 아이템.

GUEST EDITOR LEE SEUNGRYUL **PHOTOGRAPHER** PARK WONTAE

Mercedes-AMG G 63

1979년 출시한 이래 40여 년간 각진 외형을 유지해온 G-클래스는 빠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도 디자인 정체성을 고수한다. 특히 '메르세데스-AMG G63'은 AMG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과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으로 럭셔리와 스포티함은 물론 실용성까지 만족시킨다. 네 바퀴 가운데 하나만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3개의 디퍼렌셜 록과 내리막길 주행을 돕는 로-레인지 오프로드 감속 기어 덕분에 험로 주행도 원활하다. 메르세데스-AMG G63과 함께라면 교외 드라이브를 하다가 산에 오를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차박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적재 공간은 뒷좌석 폴딩 시 1941리터까지 늘어난다.

Porsche 911 Carrera S

포르쉐의 아이콘이자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911. 그중에서도 '911 카레라 S'는 6기통 수평 대향 터보차저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450마력의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한다. 최고속도 308km/h, 제로백 3.7초를 기록해 스페인어로 '경주'를 뜻하는 이름만큼 빠르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반전'이 숨어 있다. 911 카레라 S는 출퇴근이나 근교 드라이브에도 무리가 없다. 노멀 모드에서는 세단만큼 승차감이 부드럽고 과속방지턱도 사뿐히 넘는다. 신형 911에는 노면 위의 고인 물을 감지, 제어 시스템을 사전 설정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웨트 모드를 기본으로 탑재했다. 카메라 기반의 경고 및 브레이크 지원 시스템, 후방 카메라 기반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장착했다.

블루 컬러의 플로럴 프린트 스니커즈는 폴로 랄프 로렌.
네온 컬러 운동화 끈과 멀티 프린팅이 시선을 사로잡는
스니커즈는 위크엔드 막스마라.

두꺼운 옐로 프레임
선글라스는 토즈.
레드 오렌지 컬러
프레임 선글라스는 구찌.
강렬한 레오퍼드 무늬 프레임
선글라스는 돌체 앤 가바나 by
룩소티카 아이웨어.

손에 꼭 맞는 역삼각형 손잡이가 매력적인
'트라이앵글' 백은 보테가 베네타.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케이스 지름 24mm 스테인리스스틸 시계는 티파니.

경쾌한 로고 패턴의 옐로 '피카부' 백은 펜디.
레트로풍 사각 프레임 선글라스는 버버리 by 룩소티카 아이웨어.
고성능 가시 광촉매 필터를 탑재해 PM2.5의 유해 물질까지 잡아내는 'MP-C20U' 공기청정기는 카도.
64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한 팬텀 바이올렛 컬러 '갤럭시 S21'은 삼성전자.
이탈리아산 바케타 카프스킨으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는 폴로 랄프 로렌.
SPF 50의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주름 개선 효과까지 갖춘 'UV 플러스'는 클라랑스.
양가죽으로 만든 이어 패드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MB1' 무선 헤드폰은 몽블랑.
GG 로고 장식의 블랭킷은 구찌. 15배 광학 줌렌즈의 라이트 골드 컬러 카메라 '라이카 C-Lux'는 라이카.

브라운과 레드, 옐로의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 밴드가 특징인
코튼 리넨 패브릭 백은 로로피아나.
여행에 적합한 넉넉한 사이즈의 모노그램 패턴 보스턴백
'키폴 55'는 루이 비통. 콤팩트한 기내용 사이즈의 나일론 트롤리는 프라다.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의 스토리지 박스는 첨스 코리아.
길이 50cm 정도라 가벼운 피크닉을 준비할 때
유용한 햄퍼는 포트넘 앤 메이슨.

제품 협조 구찌(1577-1921), 라이카(1661-0405), 로로피아나(546-0615), 루이 비통(3432-1854), 룩소티카 아이웨어(569-3914), 몽블랑(1670-481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보테가 베네타(3438-7682), 삼성전자(1588-6084), 소비코AV(2106-2826), 에트로(3479-1810), 위크엔드 막스마라(3479-1246),
첨스 코리아(www.chumskorea.co.kr), 카도(cadoair.co.kr), 클라랑스(080-542-9052), 토즈(3438-6008), 티파니(6250-8600), 포르쉐코리아(080-810-0911), 펜디(2056-9023),
폴로 랄프 로렌(6004-0223), 프라다(3443-6047), 포트넘 앤 메이슨(www.fortnumandmason.com), 헬렌카민스키(517-1983)

송아지 가죽 트리밍이 돋보이는 로고 캔버스 쇼퍼백은 에트로.
우븐과 라피아로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슬립온은 토즈.

수놓은 듯한 로고 디테일의 옐로 네트 백은 프라다.
와이드한 리본 디테일의 바이저는 헬렌카민스키.
0.7kg의 초경량 스피커로, 최대 20시간 재생이 가능한
'마샬 엠버튼' 블루투스 스피커는 소비코AV.

FF 로고 디테일의 라피아 소재 버킷 햇은 펜디.
리본 디테일이 우아한 하늘색 크로셰 햇은 헬렌카민스키.

TERRACE MOOD

여유로운 낮의 햇살과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테라스 다이닝의 계절이 돌아왔다.

글 한동은 기자 | 사진 이경욱 기자

1 블랙 & 화이트를 메인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 테라스룸.
2 내부는 유럽 호텔의 다이닝 공간을 연상시킨다.
3 식전주 '아페롤 스프리츠'와 '이베리코 커틀릿'.
4 청사과 젤리를 올린 '아오리겔 부라타 치즈'.

Terrace Room

'테라스룸'은 유럽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매혹시키는 곳이다. 낮에는 브런치를 즐기는 유럽의 테라스 카페를, 밤에는 클래식 바와 다이닝 홀을 결합한 매력적인 호텔을 연상시킨다. 블랙 & 화이트 컬러로 클래식하고 우아하게 연출한 테라스에는 미국,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스트라이프 코튼, 격자무늬의 타일로 포인트를 더했다. 이곳에서 프렌치와 이탤리언, 노르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러피언 퀴진을 맛볼 수 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한 비주얼의 '아오리겔 부라타 치즈'는 시그너처 스타터 메뉴. 부라타 치즈를 무스로 만들고 유자에 숙성한 체리 토마토와 청사과 젤리를 올려 다채로운 향과 시원한 식감을 선사한다. 돼지 뼈 등심 부위 전체를 사용하는 '이베리코 커틀릿'은 등심부터 갈빗살, 새우살을 적절하게 정형해 고기의 육즙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뼈를 잡고 먹는 만화 속 고기를 연상시키는 비주얼에 노란 트러플 아이올리 소스, 영양부추 가니시로 색감을 더해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모두 살렸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식전주, 오렌지빛 '아페롤 스프리츠'를 곁들인다면 완벽한 테라스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테라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지향하는 테라스룸은 음악 역시 섬세하게 조율한다. 테라스룸 담당자는 "전문 아티스트와 함께 테라스룸의 뮤직 &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채널 '테라스룸 에디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각, 시각을 넘어 청각까지, 오감을 충족시키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저희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한다. 강남구 선릉로152길 37 2층 terraceroom.seoul

Boskett

소란한 강남대로변에서 조금 벗어나면 도심 속 숲을 만날 수 있다. 독일어로 '숲'을 뜻하는 이름에 걸맞게 돌벽과 긴 나무 펜스를 설치해 외부로의 시야를 완전히 가린 '보스켓'은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당크 디자인 하우스'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자 카페 & 비스트로다. 공간 곳곳에서 보스켓의 감각을 입혀 제작하거나 큐레이션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매장 곳곳의 향을 책임지는 디퓨저에는 바다 향과 세이지 허브 향이 함께 담겨 있으며, 구매도 가능하다. 매장의 한쪽 벽면은 내추럴 와인부터 컨벤션 와인까지 폭넓은 컬렉션으로 구성한 와인 보틀 숍으로 운영한다. 최광혁 소믈리에는 약 3주 간격으로 계절과 시즌 메뉴에 맞추어 디스플레이에 변화를 준다.

호주 출신의 이지민 총괄 셰프는 한식을 베이스로 한 퓨전 요리를 선보인다. 대표적인 메뉴는 '해초를 담은 남해바다 샐러드'. 버터와 꿀에 디글레이즈한 해산물과 완도산 모둠 해초를 함께 맛볼 수 있다. 바질 오일로 마무리해 바다 샐러드의 느낌을 완성했다. 최 소믈리에는 버터 향과 잘 어울리는 와인인 프렌치 오크 숙성의 고소한 '필립하디 부르고뉴 샤르도네'와 페어링할 것을 추천한다. 또 다른 시그너처인 '포레스트 파스타'는 마늘, 대파, 페페론치노로 향을 내고 참나물을 더했다. 면의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그라다파다노 치즈를 뿌리고 고소한 들기름으로 마무리했다. 탄탄한 보디감과 적당한 산미의 '상세르 소비뇽 블랑'이 오일리한 파스타와 궁합이 좋다. 강남구 봉은사로20길 18 ◎boskett_

1 매장 한쪽에 마련한 와인 보틀 숍.
2 외부의 시야를 차단해 숲에 들어온 느낌을 주는 테라스.
3 완도산 모둠 해초와 해산물을 함께 즐기는 '해초를 담은 남해바다 샐러드'. '필립하디 부르고뉴 샤르도네'와 궁합이 좋다.

1 프리빌리지 바의 내부 전경.
2 짭조름한 '페타치즈 스프링롤'과 궁합이 좋은 '엔들리스 서머' 칵테일.
3 달을 닮은 원형 바는 예전 캐피탈 호텔의 냉각탑을 활용한 것이다. 4 '데빌스 브레스'와 '파르마 햄과 그뤼예르 치즈'의 조합은 입맛을 돋운다.

Privilege Bar

전래 동화 '해님 달님'이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최상층에 위치한 '프리빌리지 바'에 녹아 있다. 싱가포르의 디자인 컴퍼니, 어사일럼 Asylum이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의 전신인 캐피탈 호텔의 냉각탑 외형을 살리고 금색 톤을 입혀 큰 달 모양의 바를 만든 것. 이태원의 시원한 전망이 펼쳐진 루프톱 공간의 미드나이트 블루 톤 벽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한 조명은 밤하늘의 별을 연상시킨다. 김성언 바텐더는 동화적인 분위기의 공간과 어울리는 시그너처 칵테일 '데빌스 브레스'를 건넨다. "악마의 숨결이라는 뜻에 걸맞게 패션 프루트와 라임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즐기다 보면 테킬라와 캄파리의 강한 알코올 향이 밀려오는 매혹적인 칵테일입니다." 콜드 컷 햄, 치즈, 너트류로 구성한 '파르마 햄과 그뤼예르 치즈' 플래터와 함께 즐기면 입맛을 돋울 수 있다. 플래터에는 바삭한 라보슈 칩과 연필 굵기의 가늘고 긴 이탈리아 빵 그리시니를 곁들여 내 치즈와 햄을 올려 먹기에 알맞다. 치즈 스틱이 생각나는 '페타 치즈 스프링롤'은 모차렐라 치즈 대신 풍미가 좋은 페타 치즈를 밀전병으로 말아 튀기고 루콜라를 올려 아삭한 식감을 더한 메뉴다. 오가닉 꿀을 골고루 뿌려 먹으면 더 향기롭게 즐길 수 있다. 튀긴 음식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진다면 강렬한 위스키 향의 '엔들리스 서머' 칵테일을 추천한다. 바닐라 향 버번위스키 베이스에 코코넛 시럽이 들어가 뜨거운 여름이 연상되는 칵테일이다. 섬세하게 마무리한 레몬 가니시로 여름에 피어나는 꽃을 표현했다. 용산구 장문로 23, RF층 ◎privilege_seoul

M 보스켓은 사전 예약 시 요청하면 이탈리아 글라스 브랜드 베트레리 디 엠폴리의 와인글라스를 세팅해준다.

RELAXING **TEATIME**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리기 좋은 티 하우스 4.

글 안서경 기자 | 사진 이석영

주소 종로구 계동길 84-3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
문의 742-9147

Delphic

한옥과 오래된 가게들이 정겨운 계동길 골목, 올해 2월 문을 연 티 하우스 '델픽'은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3층 건물을 감싸는 회색 돌벽과 마당에 놓인 조형물이 모던하고 컨템퍼러리한 인상을 주는 이곳은 델픽을 이끄는 유수진 대표가 어릴 적 살던 집을 개조해 완성한 것. 1층은 '뮤지엄 헤드'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으로 아티스트들의 전시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2~3층은 티 바와 야외 테라스 공간에서 차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국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한 유 대표는 일상에서 자연스레 즐기던 차 문화를 향유하길 바라며 젊은 세대의 입맛에도 잘 맞는 델픽만의 다양한 블렌딩 티를 개발했다. "요즘처럼 따뜻한 날씨에는 영어로 베짱이를 뜻하는 '케이티디드Katydid'를 추천해요. 건물 앞마당에 자리한 모과나무에서 나른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며 모과향이 가미된 페퍼민트 백차를 만들었죠." 이 외에도 진하고 풍부한 무화과 향이 특징인 '피그원', 레몬그래스와 바질이 조화로운 '샹그릴라' 등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개성적인 맛의 차를 맛볼 수 있다. 감각적이고 선명한 브랜딩 방식도 델픽의 특징. 다양한 컬러와 그래픽이 담긴 틴 케이스가 시선을 붙들고, 여기에 정서를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이 결합돼 공간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티를 주문하는 이도 많다. 수십명의 한국 작가가 만든 다구를 배치해놓은 점도 인상적.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다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작가의 이력을 보기 좋게 팸플릿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것도 장점이다. 차를 주문하면 이준호 작가, 윤세호 작가의 다관 등 흙의 매력이 돋보이는 도자 다구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EERT Mangwon

성수동에 1호점을 연 뒤, 마곡, 망원에 이어 대구점까지 확장하고 있는 카페 EERT. 트리tree의 스펠링을 거꾸로 한 이름처럼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지역과 어울리는 식음료 공간을 완성한다. 서울숲 가까이 위치한 성수점은 일본식 정원을 함께 배치했고, 대구는 오랜 한옥을 개조해 완성했다. 오래된 가게가 즐비한 거리에 자리한 망원점은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토대를 보존한 채 탈바꿈시켰다. 가로로 기다란 구조의 1층은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과를 포장하는 곳, 차를 내리는 곳, 커피를 위한 곳으로 나뉜다. 벽을 허물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다. 중앙에 자리한 티를 위한 공간은 낮은 조도와 따뜻한 색의 조명 아래, 무쇠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내려주는 퍼포먼스가 시각적 재미를 선사한다.

EERT의 차 메뉴는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주한다. 24절기에서 영감을 받은 자체 블렌딩 티를 개발했는데, 한 입만 마셔봐도 차 맛이 선명히 느껴지는 직관적인 맛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 파인애플·레몬껍질·사과가 상큼한 맛을 내는 '소서', 히비스커스·머루·블랙베리 등이 조화로운 '하지' 등 차 문화를 어렵지 않게 가벼운 음료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계절마다 바뀌는 한 입 크기의 각각 다른 5종류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화과자 이 외에 블렌딩 차를 냉침해 크림으로 활용한 크럼블, 구움 과자 등 티와 잘 어울리는 서양식, 동양식 디저트로 구성한다. 보기 좋게 포장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지난 2월 EERT 망원점에서는 가구 컬렉터, 사운드 큐레이터 등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티 코스를 곁들인 차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콘셉트의 차회를 비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니 인스타그램(eert_official)을 통해 이벤트 소식을 눈여겨볼 것.

주소 마포구 포은로 105-1
운영 시간 매일
12시 30분~오후 9시
문의 336-6610

Magpie & Tiger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조선 시대 민화 '호작도'에서 이름을 따온 티 하우스 '맥파이 앤 타이거'. 중국 윈난성에서 공수한 보이차, 경남 하동의 여러 다원에서 직접 구해온 허브차, 쑥차 등 동양 차를 소개한다. 김세미 대표는 편안하게 동양 차 문화에 접근하길 바라며 일상에서 쉽게 차를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 방식을 제안해왔다. 간결한 패키지에 찻잎을 담아 판매하고, 다관·개완 등 찻잔의 사이즈에 따라 차를 우리는 적절한 시간, 횟수, 온도 등을 상세히 기재한 가이드 표를 만들어 알려주는 것. 토림도예, 상명요 등 도예 작가들과 인연을 맺어 개완, 숙우 같은 다구를 함께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티를 마시는 호랑이, 까치 일러스트를 구상해 포스터, 배지 등 굿즈를 제작하기도 한다.

맥파이 앤 타이거는 최근 뷰티 브랜드 클레어스와 협업해 신사 티룸을 새롭게 오픈했다. 가로수길 한가운데에 자리한 '클레어스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는 독립 서점, 뷰티 쇼룸 등이 함께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티 룸이 있는 건물 2층으로 들어서면 잔잔히 울려 퍼지는 앰비언트 음악, 어두운 조명이 마치 명상을 위한 공간을 연상시킨다. 티 바에 앉으면 티 마스터가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어울리는 차를 추천해준 뒤 차를 우려낸다. 구리 탕관에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 천천히 우러나는 차향이 오감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싱글 오리진 티 이 외에 창의적 메뉴를 새롭게 개발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젤라토 전문점 '펠앤콜'의 우유 아이스크림과 격불한 쑥말차를 더한 '쑥말차 아포카토', 말차 맥주와 백차 소주 등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차 과자 공방 '단자리'와 곡물 디저트를 판매하는 '알트그레인'의 다식도 식감과 당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했다. 90분 간 이용 가능해 여유롭게 공간을 즐길 수 있고, 예약제로 운영된다.

주소 강남구
논현로 153길 44 2층
운영 시간 수~일요일
오후 12시 30분~오후 8시
문의 070-7678-7675

Monoha Hannam

지난해 문을 연 뒤 많은 주목을 받은 전시 공간 '모노하'. 모노하는 1960년대 전위 미술 운동의 명칭으로 '물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자연의 물성을 작품에 반영한 예술 사조를 뜻한다. 이곳을 이끄는 주은주 대표는 '비워냄'의 정신을 추구하며 이를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을 만들고자 공간을 기획했다. 젊은 신진 작가의 전시가 주를 이루는 모노하 성수점과 달리 한남점은 이우환의 작품을 포함해 곳곳에 한·중·일 작가들의 달항아리와 도자 등이 배치돼 있다. 일본 디자이너 마키시 나미真喜志奈美가 공간을 간결하게 디자인한 것도 눈길을 끄는 점. 최근 모노하 한남에서는 예약을 통해 차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했다. 본래 방문객들에게 1층 차탁에서 웰컴 티를 준비해 내주곤 했는데, 아름다운 다구에 질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기획한 것. 중국, 대만, 한국에서 최상급의 찻잎을 엄선해 박성욱, 김민욱 작가의 다구와 목기에 우려낸다. 만듦새가 뛰어난 다기들을 경험하고, 음악도 흐르지 않는 정적 속에 오직 차 맛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차 종류는 날씨에 따라 어울리는 것을 제안한다. 사진 속 차는 대만 리산 해발 2200m 고도에서 자란 우롱차로 여린 잎이 맑고 청아한 맛을 낸다. 지난해 모노하 한남에서는 <한중일 차도구 전>을 열어 동아시아에서 다도를 위해 사용한 아름다운 도구를 전시했다. 도곡 정점교, 염장 조대용, 아카키 아키토赤木明登 등 전통 방식으로 다완을 만드는 도예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는 당시 전시 작품을 포함해 모노하에서 소장 중인 도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고요한 분위기에서 호젓한 찻자리를 즐기고 싶다면 예약을 서두를 것.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와 5시 두 차례 차회를 운영하며 시간대별로 4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주소 용산구 독서당로 36
운영 시간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문의 1577-5307

DESIGN SPOT

#오늘의숍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designspot.dh)과 네이버 포스트(c11.kr/designsp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우디 스타일의 고성능 스포츠카

"레이싱 트랙에서 태어나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우디의 플래그십 고성능 스포츠카 R8 V10 퍼포먼스의 특징은 이 슬로건에 녹아 있다. 최고 출력 610마력, 최고속도 331km/h, 제로백 3.1초 등 일일이 스펙을 말하지 않아도 보는 순간 다이내믹한 디자인에 시선을 뺏기고, 시동을 걸자마자 울리는 웅장한 엔진 사운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앞쪽에 위치한 조수석, 도드라지게 강조한 휠 아치, 스포티한 디퓨저로 레이싱 DNA를 강조한 R8 V10 퍼포먼스는 차체가 낮아 도로에 밀착하듯 달리는 재미가 있다.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좁은 골목을 지날 때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어 속도를 올리니 팽팽하게 치고 나가는 가속이 놀라웠다. 5.2리터 V10 가솔린 직분사 엔진과 7단 S 트로닉 변속기의 조합으로 순간 가속이 뛰어난 데다 운전 시야가 낮아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 것.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적용한 레이저 라이트 LED 헤드라이트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일반 LED보다 밝기가 향상되어 터널 등 어두운 구간을 지날 때 가시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상시 사륜구동인 콰트로 시스템 덕분에 구불구불한 길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렸다.

강렬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은 실내에도 이어진다. 고급 나파 가죽 소재의 블랙 R8 스포츠 시트와 대비되는 색상의 다이아몬드 퀼팅 스티칭, 글로시 카본 트윌 인레이, 알칸타라 헤드라이닝 등에 R8 퍼포먼스 디자인 패키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심장을 울리는 엔진 사운드에 익숙해질 무렵 한남대교를 내려와 프리츠 한센 쇼룸과 라운지가 있는 한남동으로 접어들었다.

2

도심을 트랙으로 만드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빛나게 마련이다.
슈퍼카가 흔한 한남동에서도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처럼.

글 이영채 기자 | 사진 이우경 기자 | 장소 협조 프리츠 한센 코리아(fritzhansen.com)

한남동에서 만나는 프리츠 한센 라운지

지난해 봄, 한남동 골목 안쪽 오래된 연립주택 두 채를 레노베이션한 건물에 프리츠 한센의 로고가 붙었다. 옛 건물의 원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이곳은 프리츠 한센 코리아가 B to B 프로젝트를 위해 특화된 쇼룸을 조성하면서 탄생한 프리츠 한센 라운지다.

식음료 공간과 함께해보자는 프리츠 한센 아시아 대표 다리오 레이크르Dario Reicherl의 생각을 담아 1층은 쇼룸, 2층은 내추럴 와인 바 & 레스토랑 '빅라이츠'와 내추럴 와인 숍 & 카페 '테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재료의 특성을 살린 제작 방식, 시간을 초월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유지하는 프리츠 한센과 첨가물 없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드는 내추럴 와인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느껴 국내 1세대 내추럴 와인 바 빅라이츠에 입점을 제안했다.

프리츠 한센 코리아 이수현 지사장은 "건축가, 디자이너 등의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품을 보여줄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한다. 대표 제품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매장과 비슷하지만 '테이블 시리즈' 중 업무용으로 적합한 익스텐션 모델, 비코 마지스트레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20년 출시한 '비코 듀오' 체어, 뉴욕 시티 프로젝트인 VIA 57 웨스트 빌딩을 기념해 만든 '비아' 체어 등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연출했다. 아티스트 국화의 판화, 포토그래퍼 김재훈의 사진 등 프리츠 한센 코리아와 협업하는 작가의 작품을 배치하고, 오드 메종과 컬래버레이션한 프리미엄 사운즈 오디오를 설치하는 등 딱딱하지 않은 업무 공간을 완성했다.

1, 2 강렬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의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3, 4 다양한 스타일의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제안하는 프리츠 한센의 B to B 쇼룸.
5 페일 로즈 컬러의 '시리즈 7' 체어.
6 '닷' 스툴, '스완' 체어, 'No.1' 체어, 카이저 이델의 램프 등으로 연출한 테투. 테이크아웃으로 병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
7 프리츠 한센 '그랑프리' 체어로 꾸민 빅라이츠.

아우디는 4월 14일, 최초의 콤팩트 전기 SUV 'Q4 e-트론'과 'Q4 스포트백 e-트론'을 공개했다.

THE NEW STYLE OF HERMÈS

에르메스가 2021 워치스 & 원더스를 통해 위트 있는 감성과 우수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겸비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새로운 아이코닉 워치로 자리 잡을 4가지 워치 컬렉션을 살펴본다.

H08

2021 워치스 & 원더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남성 시계 컬렉션을 선보인 에르메스. 일상의 흐름과 감정의 고조, 휴식과 여유 등 오늘을 살아가는 남성의 모든 순간을 하나의 시계 속에 녹여낸 'H08' 워치가 첫 번째 주인공이다. 이 시계의 매력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가 하나의 오브제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는 데에 있다. 유연한 곡선형 케이스와 대조되는 스포티하고 대담한 디자인, 매트하면서도 광택을 발하는 다이얼의 이중적인 텍스처 등을 한데 담았다. 모서리를 둥글린 사각형 케이스 안에 담긴 원형 다이얼에서는 새로운 숫자 타이포그래피가 눈에 띄는데, 특히 0과 8의 타이포그래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숫자 0은 무를 상징하며, 8은 가로로 놓았을 때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의 형상을 띤다. 이는 무와 무한을 오가는 신비한 항해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제품은 총 3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모두 자체 제작한 'H1837' 메커니컬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래핀 합성 신소재 케이스에 새틴 및 폴리싱 마감한 세라믹 베젤을 얹은 모델. 블랙 골드 마감 다이얼의 4시와 5시 방향 사이에는 날짜 창을 디스플레이했다. 그 외 2가지 버전은 모두 블랙 니켈 코팅 다이얼로 선보이며, 각각 우븐 스트랩과 러버 스트랩을 장착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완성한다.

Slim d'Hermès C'est la Fête

말을 타고 있는 해골 기수의 모습을 파요네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기법 등을 통해 화려하게 표현한 '슬림 데르메스 세 라 페트'는 2015년 탄생한 '슬림 데르메스' 라인에 예술적인 기교를 더한 작품이다. 다이얼은 수공예 에나멜링 및 폴리싱 마감 처리한 화이트 골드 표면 위에 장인의 섬세한 붓 터치를 더해 완성한 것. 화려한 컬러와 입체감 있는 다이얼이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어우러져 우아한 멋을 전한다. 시계 내부에는 'H1950' 울트라신 에르메스 매뉴팩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공방에서 제작한 매트 어비스 블루 스트랩을 장착하는 등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 쓴 모습이 인상적이다.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력과 위트 있는 디자인이 만난 이 특별한 워치는 오직 8피스 한정으로 선보여 더욱 소장 가치가 높다.

Arceau Pocket Aaaaargh!

1978년 앙리 도리니가 디자인한 '아쏘' 워치는 말의 발걸이인 등자에서 영감을 얻은 비대칭 러그 디자인으로 에르메스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차용한 '아쏘 포켓 으악!' 워치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시계 커버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영국 아티스트 앨리스 셜리가 디자인한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 속 티라노사우루스를 시계로 옮겨온 것. 오트 오를로제리와 가죽 장인의 기술을 접목, 생동감 있는 아트워크를 구현해 놀라움을 안긴다. 머리와 비늘은 스카프 패턴을 그대로 담기 위해 수천 개의 가죽 조각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이어 붙였다. 커버 양면에서 볼 수 있는 둥근 돔 형태의 공룡 눈은 카보숑 컷 그랑 푀 에나멜링으로 제작했고, 턱과 혀 부분에는 가죽 마키트리 기법을 적용했다. 다이얼을 덮는 커버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한 달여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계의 심장부 또한 심상치 않다. 미닛 리피터와 투르비용 무브먼트 'H1924'를 장착했으며, 무려 9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감탄을 자아낸다.

Faubourg Polka

초소형 라운드 케이스와 자개 다이얼로 우아한 멋을 전하는 '포부르 폴카' 워치가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을 장착하고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점과 사선이 반복되는 메시 구조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은 옆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과 뻗어 나가는 직선 사이에서 리드미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 또한 놓치지 않았다. 화이트 골드 소재의 워치는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천연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풀 파베 세팅한 다이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또한 전체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로즈 골드 소재의 경우 브레이슬릿에만 차이를 뒀다. 보석을 세팅하지 않은 버전과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2가지. 일상에서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다이아몬드 풀 파베 세팅 모델까지, 5가지의 다양한 라인을 전개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글 정상우(프리랜스 에디터) | 자료 제공 에르메스(542-6622)

Slim d'Hermès C'est la Fête

Arceau Pocket Aaaaargh!

Faubourg Polka

Faubourg Polka

Cartier

팬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팬더 드 까르띠에'의 역사는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루이 까르띠에가 먹이를 찾는 팬더에게 반해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 이 여행을 계기로 1914년, 오닉스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르띠에의 첫 번째 팬더 모티프 워치가 만들어졌다. 이후 루이 까르띠에는 파리 사교 모임을 이끌며 '팬더'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잔느 투상에게 팬더 장식 케이스를 선물했고, 이때부터 까르띠에의 팬더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던 투상이 팬더 모티프가 장식된 소지품 케이스를 주문했는데 그에 감명받은 루이 까르띠에가 메종에 합류하길 권유한 것이다. 이렇게 당시 스타일 아이콘이던 잔느 투상은 이후 까르띠에의 액세서리와 하이 주얼리 디자인을 맡게 된다.

1 다양한 팬더 모티프 주얼리를 선보인 잔느 투상.
2 팬더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매력적인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3 그린 에메랄드로 팬더의 눈을 재현하고 풍성한 술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한 '팬더 드 까르띠에' 이어링.
4 블랙 오닉스를 통해 팬더 스폿을 표현하고, 까르띠에의 노하우로 팬더의 털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5 강렬한 인상을 전하는 '팬더 드 까르띠에'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1933년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기 시작한 잔느 투상은 숙련된 장인들과 함께 팬더 모티프를 제작했다. 동물을 사랑했던 디자이너 피에르 르마르샹과 협업해 실물에 가까운 팬더를 구현했고 결국 까르띠에의 심벌이 된, 살아 움직이는 듯한 팬더를 완성했다. 까르띠에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팬더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주얼리와 워치를 선보여왔는데, 올해는 심플함을 강조한 새로운 '팬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을 소개한다. 무엇보다 착용감을 높이는 일에 주목했고, 팬더의 사랑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소재로 구성되는 '팬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전국 까르띠에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글 이선화(프리랜스 에디터) | 문의 까르띠에(1566-7277)

3

4

5

CLARINS

Live Beautifully

"순간을 아름답게
오늘을 아름답게"

Extra-Firming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 탄력

클라랑스 엑스트라-퍼밍 크림

Publicis Ethosia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PARIS

HERMÈS H08
THE TEXTURE OF TIME